

대림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중고등부 교육부

학습목표

우리에게 오실 아기 예수님을 보다 기쁘고 의미 있게 기다리도록 한다.

준비물

반으로 자른(세로 방향) 종이컵 4개, 색종이(흰색·분홍·연보라·보라), 풀, 색상지, 잎사귀 모양 종이, 메모지, 매직펜

시작기도

주님의 기도

바라보기 (15분)

<작업> 예수님은 어디에?

- ① 5번 칸에 자신의 이름을 씁니다.
- ② 나머지 빈칸 중 하나를 택해 예수님의 이름을 씁니다.
- ③ 나머지 빈칸 중 2, 4, 6, 8에 생각나는 동성 친구의 이름을 씁니다.
- ④ 1, 3, 7, 9에는 생각나는 이성 친구의 이름을 씁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작업 해설

- ① 당신의 평생 친구
- ② 밤늦게 전화해도 반겨 줄 친구
- ③ 당신과 생각이 잘 통하는 친구
- ④ 오순도순 대화하는 친구
- ⑥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의 일을 도와주는 친구
- ⑦ 어쩌면 당신을 짝사랑하고 있는 친구
- ⑧ 참 많이 싸우지만 늘 먼저 화해를 청하는 친구
- ⑨ 내 사소한 이야기까지 다 기억해 주는 친구

☞ [교사에게]

이 작업은 실제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예수님을 가장 가까운 친구라는 이미지로 연상할 수 있고, 주변 친구들과의 관계를 되돌아볼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작업의 결과가 신앙심과는 무관한 것임을 알려 주세요.

- 1. 의미 있고 소중한 사람을 위해서 정성스럽게 무엇을 준비했던 적이 있나요?
- 2. 예수님을 위해서 정성스럽게 무엇을 준비했던 적이 있나요?
- 3. 정성스럽게 준비한 것을 전해 주고 나서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보통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생일이나 특별한 기념일에 선물을 할 때에 그 사람의 평소 취향이나 특징, 성격 등을 고려합니다. 그리고 선물을 받는 사람이 어떤 것을 받을 때 가장 기뻐하고 좋아할지 미리 생각하여 선택합니다. 선물은 받을 때도 기분이 좋지만, 그것을 정성스럽게 준비하여 건넬 때 더욱 기분이 좋기도 합니다.

우리는 작업해 통해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알아보았습니다. 어쩌면 [작업 해설]에 제시된 모든 모습들이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얼마 남지 않은 성탄, 우리는 우리의 친구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요? 교회는 이맘때를 ‘대림’이라는 기간으로 보냅니다. 대림은 전례력으로 한 해의 시작이며 아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은 나에게 메시아, 곧 희망이 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희망, 기쁨을 기다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 **[교사에게]**

예수님의 탄생은 하느님께서 부족한 인간에게 내려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정성을 다해 선물을 준비하고, 정성스럽게 선물했던 기억을 이야기해 봄으로써 고통을 감수하고 우리에게 아기 예수님을 보내 주신 하느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지도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대림 기간, 우리들이 가져야 할 모습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알아보기 (20분)

1. 성경 속의 인물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어떻게 기다렸을까요?
2.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아기 예수님을 맞이해야 할까요?

대림은 라틴어 ‘Adventus’에서 유래하였고 그 뜻은 ‘오심’ 또는 ‘도착(도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이자 왕이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대림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 어떻게 준비하고 기다려야 할까요? 성경 속의 인물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리며 준비했을까요?

대림 시기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인물로 이사야 예언자와 세례자 요한 그리고 성모 마리아가 있습니다. 성모님은 하느님의 아들을 잉태하리라는 선택을 받고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세를 보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대림 기간 안에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12월 8일)’을 지내는데, 이 축일은 하느님의 아들을 잉태하기 위해 성모님께서 아무런 죄 없이 잉태되셨음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한편 이사야 예언자는 약속의 말씀, 곧 주님께서 오실 것을 선포하고 예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대림 시기에 독서로 가장 많이 읽힙니다. 그리고 주님의 성탄이 더욱 가까워지면, 세례자 요한이 복음에 등장합니다. 그는 주님의 오심을 선포했고, 그분의 길을 닦고 고르게 하라는 말씀을 정의의 실천으로 보여 주었습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골짜기는 메워지고 굽은 데는 곧아지며 거친 길은 평탄하게 되듯 주님의

길을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대림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때입니다.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성모님, 이사야 예언자, 세례자 요한처럼 기다리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는 때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성모님처럼 선택된 이의 겸손하고 순종하는 자세, 이사야 예언자처럼 주님의 명을 받아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세, 세례자 요한처럼 정의를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자세를 가르쳐 줍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주님을 기다리며 설레고 기대가 가득했습니다. 구세주를 맞이하려고 꾸준하게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며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단정히 했습니다. 하느님의 자녀로 살기에 주님의 소식을 이웃에게 기쁜 마음으로 전하였습니다. 또 주님을 맞이하려는 몸가짐으로 그분의 정의를 실천하려고 애썼습니다.

† 가르침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깨어 있어라”(마르 13, 37).

‘깨어 있음’은 곧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과 임무’를 다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특별한 그 무엇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평범한 일상에 충실히 임하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준비’라는 것은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힘들고 고통스럽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는 더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에 나와 있듯, 우리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전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어떤 고정된 방법이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때는 홍수의 심판으로 오시기도 하고, 베들레헴에서처럼 아기의 모습으로 오시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가난한 사람의 모습이나 심판자의 모습으로 오시기도 합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일’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평범한 일에 충실’하는 것이 그분을 맞이하기 위한 우리가 삶입니다. 언제나 하느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일상의 만남과 사건들에 담겨져 있는 하느님의 뜻을 찾아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마음의 준비입니다. 대림절은 희망과 기쁨의 시기기도 합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시기입니다. 복음에서처럼 우리가 구원받을 때가 가까이 온 것입니다. 먼 옛날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고대하였듯이 우리도 예수님 탄생의 기대와 설레는 마음으로 몸을 단정하게 갖추고, 주님이 오신다는 기쁜 소식을 이웃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역할에 충실히 임하며 그리스도의 성탄을 기다리면 하느님께서도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 당신의 아들을 새롭게 탄생시켜 주시고 우리 모두 기쁨과 평화를 깊이 맛보게 해주실 것입니다.

살아가기 (15분)

〈작업〉 “어서 오세요, 예수님” [대림환 만들기]

- ① 아기 예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실 나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 ② 그 모습을 위해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 ③ 대림 1주부터 4주까지, 각 주의 주제에 알맞은 우리들의 모습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실천 사항, 기도, 이웃과의 약속 등등)
 - 대림 1주 주제 : 세상 종말에 대한 준비와 경고(진보라색 초 점화)
 - 대림 2주 주제 : 세례자 요한의 구세주 오심에 대한 속죄의 권유(진보라 · 연보라색 초 점화)
 - 대림 3주 주제 : 구세주 탄생 임박에 대한 준비와 기쁨(진보라 · 연보라 · 분홍색 점화)
 - 대림 4주 주제 : 성모 마리아의 넘치는 기쁨(진보라 · 연보라 · 분홍 · 흰색 점화)
- ④ 종이컵 2개를 세로로 반으로 자른 다음, 색지 위에 붙입니다.
- ⑤ 색지 위에 붙인 종이컵에 각각 진보라 · 연보라 · 분홍 · 흰색 색지와 잎사귀를 붙여서 대림환으로 꾸밉니다.
- ⑥ ③에서 생각한 것들을 실천하고 색지로 불꽃을 만들어 대림초에 붙입니다.

☞ [교사에게]

단순한 대림환이 아닌 우리들이 계획한 약속이나 기도를 실천해야만 완성할 수 있는 특별한 대림환입니다. 벽에 붙일 수 있도록 입체적으로 만들어 대림 기간 동안 게시해두도록 하고, 한 주 한 주 대림환을 완성함으로써 알차게 성탄을 준비할 수 있게 하세요.

대림절은 아기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을 간직하는 시기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묵상하고 성찰과 회개를 통해 나를 비우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맞이할 자리를 새롭게 마련하여 구세주 탄생의 의미를 자선으로 전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성탄이 가까워지면 마음의 준비보다는 겉치레에 치중해 성탄의 중요한 의미를 잊기도 합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바탕이 되어 고통받고 소외된 곳, 어두운 곳에 사랑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실 수 있도록, 성탄의 주인공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맞이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침 기도

액션송 1집 〈어서와요 그대여〉